



문법의 끝 [문법 I] 해설

[2006학년도 9월 모의평가 40-43번 비문학(언어)] - 언어와 인간 심리의 상관성 (본문 p.20)

[40-43 지문해설]

《지문의 구조》

처음	1문단	(일반적 견해)	인간은 세계를 자기중심적으로 인식 ↓
		(개념적용)	이러한 심리구조는 언어 표현에도 반영 [예시]
중간	2문단	(구체적 사례)	화자의 심리를 반영하는 언어 표현 - 사은유 [예시]
	3문단	(개념의 확대)	사물에 대한 인간의 인식과 그 언어 표현의 상응 관계 [예시]
	4문단	(부연)	언어 표현이 인간의 심리 작용에 영향을 미치기도 함 [예시]
	5문단	(이론의 한계)	언어가 인간의 사고를 완전히 지배하는 것은 아님 [예시]
끝	5문단	(결론)	인간의 심리 작용은 언어 구조와 관계없이 어떤 보편성을 띠고 있음

주제 : 인간의 심리와 언어 표현

40 추론적 사고(주제 추론) 【정답 ②】

(정답 해설) 전체적으로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이냐는 질문은 결론으로 알 수 있는 질문을 찾아가면 된다. 결론에서 ‘인간의 심리 작용은 언어 구조와 관계없이 어떤 보편성을 띠고 있다’로 정리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심리 구조와 언어와의 관계를 언급한 질문을 찾으면 ②번이 답이 된다.

(오답 해설) ①번은 언어가 인간의 심리를 결정하는 지의 여부에 관한 질문이다. 4문단까지는 언어 표현이 인간의 심리 작용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고 했지만, 5문단에서는 언어가 인간의 사고를 완전히 지배하는 것은 아니라고 결론지었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다.

③번, ⑤번은 이 글의 내용과 관련 없는 내용이고,

④번은 1문단에서 이미 확인된 부분이지만 이 글의 결론이 의도하는 바와 합치되지 않기 때문에 오답이다.

41 추론적 사고(개념의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 ①】

(정답 해설) [A]에서 언급하는 ‘사은유’는 신체의 일부의 이름을 빌려 써서 화자의 심리를 반영하는 언어 표현이다. ‘바늘귀’ 역시 그 특징을 드러내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예는 ‘입방아’이다. ‘입방아’는 ‘어떤 사실을 화제로 삼아 이렇쿵저러쿵 쓸데없이 입을 놀리는 일’을 의미하는 데, 나머지 말들은 사물의 신체 부위를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이미지가 연결되는 반면 ‘방아의 입’은 ‘입방아’의 의미와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오답 해설) ②번의 ‘말허리’, ③번의 ‘상다리’, ④번의 ‘병목’, ⑤번의 ‘버선코’는 모두 사물에 신체 부위와 같은 위치를 떠올리면 쉽게 이해가 가능하므로 ‘바늘귀’와 같은 사은유가 쓰였다고 볼 수 있다.

42 추론적 사고(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 ④】

(정답 해설) [B]는 사물에 대한 인간의 인식과 그 언어 표현의 상응 관계를 나타내는 예로, 단순한 개념은 표현도 단순하고, 복잡한 개념은 표현도 복잡하다는 설명이다. 이것이 적용된 예로 ‘사람+들’을 사용했는데, 단수인 ‘사람’에 ‘들’이라는 접사를 붙여 복수인 ‘사람들’을 나타냈다. 이는 단순한 개념인 ‘사람’은 단수로, 복잡한 개념인 ‘사람들’은 단수에 접사를 붙인 복잡한 형태로 실현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④번은 동사 어간에 어미가 붙어 활용형으로 실현되는 예이다. 이전의 개념보다 복잡해진 것도 찾을 수 없고, 나머지 예가 ‘단수+접사’인 형태를 보이는 것에 반해, ‘단수+어미’의 형태이므로 오답이 된다.

(오답 해설) ①, ②, ③, ⑤번은 모두 ‘단수+접사’인 형태로 나타나 ‘사람들’과 같은 사례가 된다.

43 창의적 사고(문장 간의 논리적 관계) 【정답 ②】

(정답 해설) ①은 ‘언어가 인간의 사고를 완전히 지배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주장) 왜냐하면 인간의 사고가 언어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사례도 종종 발견되기 때문이다. (근거)’의 문장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앞문장의 주장은 뒷문장의 구체적 사례들을 바탕으로 한 근거로 형성된 것이다. 이는 개별적으로 경험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귀납적 추론’과 관계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예를 찾으면 된다. 정답은 ②번으로 ‘운동을 할 때 어떤 경우에는 체내에 활성 산소가 축적되어 노화를 촉진할 수도 있는’ 구체적 사례를 바탕으로 ‘운동이 언제나 건강에 이로운 것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맺고 있으므로 ①과 동일하게 ‘귀납적 추론’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번은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게 되면 탄로날 것을 우려한 나머지 긴장과 두려움으로 자율신경계에 혼란이 오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개별적으로 경험하여 알게 된 구체적인 사실이 아니라 보편타당한 일반적 진리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일반적 원리에 특수한 명제를 부여하여 결론을 내리는 ‘연역적 추론’의 방법에 해당하는 예가 된다.

③번은 ‘사람은 기본적인 인권을 가지고 태어난다.’가 일반적 원리(대전제)에 해당하고, ‘인권은 어떤 사람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 또한 일반적 원리(소전제)에 해당한다. 주장으로 나온 ‘범죄자라고 해서 인권을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명제는 일반적 원리들로 도출될 수 있는 결론에 해당하므로, 삼단논법이 사용된 ‘연역적 추론’에 해당한다.

④번은 ‘우리의 외부 세계와 내부 세계가 서로 대응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는 일반적 명제를 근거로 특수한 명제인 ‘언어’의 세계를 적용했기 때문에 ‘연역적 추론’에 해당한다.

⑤번은 ‘비유만으로 모든 기능을 끝마치는 건 아니다.’라는 일반적 명제를 근거로 특수한 명제인 ‘속담의 활용론적 부차 기능’을 적용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연역적 추론’에 해당한다.

[2015학년도 9월 모의평가 A형 11번] - (본문 p.33)

11 음운의 변동 (개념 적용) 【정답 ①】

(정답 해설) ‘식물’이 [싱물]로 발음되는 현상은 ‘ㄱ’이 ‘ㅇ’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비음화에 해당된다. ‘입는’이 [임는]이 되는 현상이나, ‘뜯는’이 [뜨는]으로 발음되는 현상 역시 비음화에 해당하는 데, 이들은 모두 음절 말 자음인 안울림 소리인 ‘파열음’과 이어지는 음절의 초성이 울림 소리인 ‘비음’과 충돌할 경우 생기는 현상이므로, 세 경우 모두 두 자음이 충돌할 때 앞 음절 말 자음이 비음으로 변화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5학년도 6월 모의평가 A형 11번] - (본문 p.33)

11 음절의 개념 (개념 적용) 【정답 ①】

(정답 해설) ‘끼’의 경우 ‘ㄱ’은 하나의 자음이므로, 초성에 최대 두 개의 자음이 온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② <보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말의 중성은 모두 모음이다.

③ 중성에 올 수 있는 음운은 훈민정음의 중성부용초성(중성은 초성을 다시 쓴다) 표기법의 원칙에 따라 초성의 자음이다.

④ 초성이 없는 음절은 ‘아, 야, 와, 의’처럼 초성에 ‘ㅇ’이 온 경우로, 초성의 ‘ㅇ’을 제외한 나머지는 자음에 해당된다.

⑤ ㄱ~ㄹ의 예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우리말에서는 자음만 발음할 수 없어 반드시 중성인 모음이 오게 된다.



[2014학년도 예비수능 모의평가 A형 11번] - 음운의 개념 (본문 p.34)

11 어휘·어법 (음운의 정의) 【정답 ②】

(정답 해설) 보기는 '음운'의 정의에 관한 글이다. (ㄱ)은 음소(분절음운)의 개념과 예이고, (ㄴ)은 운소(비분절음운)의 개념과 예이다. 이를 통해 음운으로 단어의 뜻이 구분됨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ㄱ)은 문자로 표기할 수 있지만 (ㄴ)은 문자로 표기하지 않고, 소리의 길이로 실현되어 나타난다.

③ (ㄱ)과 (ㄴ) 모두 음운의 변화를 보여주지 않는다.

④ 자음은 초성과 중성에 사용되고, 모음은 중성에만 사용되므로 어떤 위치든 나타난다는 설명은 옳바르지 않다.

⑤ (ㄱ)과 (ㄴ)은 의미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감정의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2013학년도 10월 학력평가 A형 11번] - 단모음 체계 (본문 p.34)

11 어휘·어법 (단모음 체계) 【정답 ②】

(정답 해설) 'ㅐ'는 전설 모음이면서, 평순, 저모음에 해당하고, 'ㅑ'는 전설 모음이면서 평순, 중모음에 해당한다. 즉, 전설 모음이면서 평순으로 발음되는 것은 동일하지만 혀의 높이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를 발음할 때에는 '계'에 비해 혀의 높이를 조금 더 낮춰 발음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개'와 '계'는 모두 평순 모음이므로 입술을 동그랗게 오므릴 필요가 없다.

③ '입술과 혀를 움직이지 말아야한다'는 내용은 <보기>에서 찾을 수 없다.

④ 'ㅐ'는 개모음이므로 입을 더 크게 벌려야 한다.

⑤ 'ㅐ'와 'ㅑ'는 모두 전설 모음이므로 혀의 최고점은 앞쪽에 위치해야 한다.

[2012학년도 수능 40-42번 비문학(언어)] - 한글의 표음성 (본문 p.35)

[40-43 지문해설]

《지문의 구조》

처음	1문단	(화제 제시)	조선 시대 역관들에게 중요했던 '중국의 한자음을 정확히 익히는 일'
		(기존 개념의 문제 상황)	반절법의 개념과 예 - but, 조선의 역관들에게 비효율적(한계)[예시]
중간	2문단	(문제 상황 극복 대안)	조선의 운서에서는 3분하여 정확한 한자음 표현 가능(한계 극복)[예시]
		(기존 개념과 대조)	이 때, 한글은 발음 기호의 역할 수행 중국의 반절법⊖(한계) ↔ 조선의 운서⊕(극복)[대조]
끝	4문단	(개념 부연)	한글이 발음기호로써 유용했으나, 완벽한 일대일 대응은 아님
		(결론-일반적 개념에의 확장)	음소적 차원에서 말소리를 적는 표음 문자의 특징

주제 : 표음 문자인 한글의 음소적 차원의 특성

40 사실적 사고 (일치 불일치) 【정답 ②】

(정답 해설) 2문단의 『사성통해』에서는 반절법이 아닌, 조선의 '운서'에서 한글의 발음을 표시했다는 설명이 나와 있다. 그러므로,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1문단을 보면 '중국에서는 한자의 발음 사전인 운서에서 한자음을 초성과 중·중성으로 이분하여 두 개의 한자로 표시하는 반절법'이 쓰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③ 1, 2문단을 보면 조선 시대 역관들은 중국의 한자음을 정확히 익히기 위해 반절법이 쓰였고, 반절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조선의 운서로 '한글'로써 한자음을 익혔음을 알 수 있다.

- ④ 2문단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때 한글은 일종의 발음 기호와 같은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3문단 끝 부분을 보면, ‘이상적인 발음 기호에 요구되는 발음과 기호의 완벽한 일대일 대응’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다.

41 추론적 사고 (세부 정보의 추리) 【정답 ②】

(정답 해설) 분절법에선 한 개의 한자음을 학습하기 위해 두 개의 한자가 필요하다. 이는 두 개의 한자음을 학습하기 위해선 네 개의 한자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된다. 그러므로, ‘어떤 한자가 둘 이상의 발음을 가질 때에는’ 4개의 한자가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해설)** ① 반절 표시는 한자를 읽어야 ‘초/중·종성’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설명이다.
 ③ 1문단을 보면, ‘동(東)’이란 한자는 ‘홍(紅)’이란 한자가 필요하고 동시에 다른 한자들의 발음 표시에 사용되기도 한다고 나와 있다.
 ④ 1문단의 설명을 종합하면, 같은 초성을 가진 단어들은 무엇이든 사용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반절법에선 한 글자의 한자 발음을 알기 위해 2글자가 필요하므로 둘의 조화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읽을 수 없는 비효율성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42 창의적 사고 (원리의 파악과 다른 사례에의 적용) 【정답 ①】

(정답 해설) 이 부분은 4문단의 설명과 비슷한 예를 실제 적용해 설명하고 있다. ‘고궁’은 음성적 차원에서 무성음[k]와 유성음[g]로 발음하지만, 실제 표기인 음소적 차원에선 모두 ‘ㅂ’으로 표기된다. 이는, 한글의 표음성은 음소적 차원과 관련 있음을 보여주는 적절한 예가 된다.

- (오답 해설)** ② A는 음소적 차원의 표기로, 일반적 문자 표기와 일치한다. B는 음성적 차이를 보여주는 표기이다. 그러므로 말소리의 음성적 특성을 더 잘 반영하는 것은 B이다.
 ③ A의 ‘ㄱ’은 B에서 [k]와 [g] 두 개의 기호와 대응한다. 그러나, [k]는 ‘ㄱ’이 어두에 왔을 때 나는 무성음이고, [g]는 ‘ㄱ’이 모음 사이에 놓였을 때 나는 유성음이다. 그러므로, 두 기호의 출현 환경이 같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④ A의 ‘ㅇ’은 ‘궁’의 받침에선 ‘[ŋ]’으로, ‘이’의 초성에선 무음으로 표기되어 있다. 그러므로, 발음과 기호가 일대일 대응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⑤ B는 단어의 의미를 고려하지 않은 ‘음성적 표기’이다. 그러므로 표음성은 A보다 B가 더 높다.



[2008학년도 수능 31-33번 비문학(언어)] - 개구도를 중심으로 한 음절의 특징 (본문 p.36)

[31-33 지문해설]

《지문의 구조》

처음	1문단	(개별적 화제)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는 음절[예시]
중간 + 끝	2문단		↓
		(개념 일반화)	연속적인 말소리를 음소, 음절로 분화하여 인식
		(새로운 개념 제시)	- 음절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쉬르의 개구도 비교 방법'
	3문단	(개념 예시)	'동대문' 적용[예시]
	4문단	(개념 심화)	위치에 제한을 받는 음절 구조[예시]
	5문단	(개념 구분)[대조]	↔ 언어에 따른 음절 구조의 변동 & 음절의 구조의 의의

주제 : 발음의 최소 단위인 음절의 구조의 분석 방법과 특징

31 사실적 사고(일치 불일치) 【정답 ①】

(정답 해설) 이 글은 '이웃한 자음과 모음의 개구도를 비교하여' 음절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하는 소쉬르의 비교 방법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므로, '모음의 변화를 중심으로 하여 국어 음절의 특성을 제시했다'라는 설명은 적절치 않다.

(오답 해설) ② 2, 3문단에서 '소쉬르의 음절 구조 파악 방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말소리가 음절로 나누어지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③ 1문단에서 일상생활에서 음절을 활용하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맞는 설명이다.

④ 4문단에서는 음절 초에는 'ㅇ[ŋ]'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음이 올 수 있지만, 음절 말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ŋ]' 7개의 자음밖에 올 수 없다는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위치에 따라 올 수 있는 요소가 제한됨을 확인할 수 있다.

⑤ 5문단의 '음절 구조가 다른 두 언어가 접촉하면 음절의 수나 구조에 변동이 오기도 한다'라는 설명으로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32 사실적 사고(핵심 내용 요약) 【정답 ③】

(정답 해설) 3문단을 보면, '음절에서 개구도가 가장 큰 말소리가 음절의 핵이 되고, 이 때 음절의 핵은 언제나 모음이고, 그 앞과 뒤에 자음이 하나씩 올 수 있다'라는 설명이 있으므로, (ㄱ)에는 '큰', (ㄴ)에는 '작은', (ㄷ)에는 '하나', (ㄹ)에는 '발음'이 와야 한다.

33 창의적 사고(핵심 개념의 이해 및 적용) 【정답 ①】

(정답 해설) 3문단의 소쉬르의 음절 구조 파악 방법의 실례를 적용하는 문제이다. 소쉬르의 개구도 비교 방법에 따르면, '<><>>'의 경우 '><'부분이 1개 이므로 2음절로 나뉠을 알 수 있고, 화살표의 개수로 인해 '자음+모음/자음+모음+자음'의 구조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가족'은 개구도가 06150이고 이를 실현하면 '<><>>'의 모습이 나타난다.

(오답 해설) ② '다수'는 '자음+모음/자음+모음'의 구조이므로 틀리고 실현 양상은 0614 '<><>'이다.

③ '성질'은 '자음+모음+자음/자음+모음+자음'의 구조이므로 틀리고 실현 양상은 152143 '<>><>>'이다.

④ '승부'는 '자음+모음+자음/자음+모음'의 구조이므로 틀리고 실현 양상은 14204 '<>><>'이다.

⑤ '우정'은 '모음/자음+모음+자음'의 구조이므로 틀리고 실현 양상은 4152 '><>>'이다. 특히, '우정'의 '우'를 '자음+모음'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음절 초의 표기 'ㅇ'은 자음이 아니라 자리를 채우기 위한 표기일 뿐, [ŋ]의 발음값을 갖지 못한다.

[44-47 지문해설]

《지문의 구조》

처음	1문단	(일반적 개념 제시)	문자의 발달 단계(그림문자→표의문자→표음문자	음절문자(가나) 음운문자(알파벳)
			↓	
중간	2문단	(중심 화제 적용)	음운 문자인 한글,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어 '자질 문자'로 보는 견해도 있음 (but, 한계○)	
	3문단	(논지 구체화)	각 문자들의 특징 및 여러 특징을 포함한 한글의 우수성	
	4문단	(예시)	한 문자가 여러 언어의 특성을 갖는 다른 언어의 예[예시]	
끝	4문단	(중심 화제의 의의)	음운 문자, 자질 문자, 음절 문자의 장점을 모두 가진 한글	

주제 : 한글이 지닌 문자적 특징과 의의

44 사실적 사고 (일치 불일치) 【정답 ②】

(정답 해설) 음절 문자는 음절 전체가 하나의 글자로 나타난다. 자음과 모음을 하나로 합쳐서 표현하는 음운 문자와 달리, 각각 분리하여 써야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음절 문자는 음운 문자보다 글자 수가 많다.

(오답 해설) ① 1문단을 보면, 그림 문자가 표의 문자로 발달되었고, 표의 문자의 한계를 극복한 것이 표음 문자라고 했으므로 표음 문자는 그림 문자보다 발달되었다고 할 수 있다.

③ 3문단 마지막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한글이 몇 가지 문자 부류의 장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4문단의 '인도, 이태리'는 한자가 외국어 고유 명사를 표기할 때 주로 글자의 음을 이용하는 것을 나타낸다.

⑤ 3문단 첫 문장 '문자 발달사의 단계가 반드시 문자의 우수성의 정도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란 설명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45 사실적 사고 (정보 간의 관계) 【정답 ③】

(정답 해설) 2문단에서 '한글은 특별히 자형이 음운 자질을 반영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음운 문자와는 별도로 '자질 문자'를 설정하고 한글을 여기에 귀속시키는' 부분이 확인되므로 (ㄱ)에는 '자질 문자'가 들어가고, 4문단에서, '한자는 표의 문자이지만, 문자 운용의 관점에서 보면 음절 문자의 특성도 가지고 있다'는 부분으로 인해 (ㄴ)에는 '음절 문자'가, '한글은 문자 운용의 관점에서 보면 음절 문자의 특성까지 가지고 있다'로 (ㄷ) 역시 '음절 문자'가 들어감을 알 수 있다.

46 추론적 사고 (미루어 알기) 【정답 ④】

(정답 해설) 4번은 '木'과 '林', '日'과 '目'에서 획이 늘어난 것을 보이는 글자 모양의 차이를 보이는 데, 이는 자질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를 구분하기 위한 표현일 뿐이다. 그러므로 답은 4번이다.

(오답 해설) ① 'ㄱ'과 'ㅋ', 'ㄷ'과 'ㅌ'은 형태적으로 닮은 모습을 보인다. 이는 가획하여 글자를 표현했기 때문이다.

② 2문단에서 'ㄱ, ㅋ'은 소리는 조금 달라도 '발음 위치가 같은 쌍'이라고 하였다.

③ 2문단에서 '추가된 획은 거셈이라는 자질을 나타내므로 한글을 자질 문자로 볼 수 있다'라는 설명을 확인할 수 있다.

⑤ 2문단을 보면, 특별히 자형이 음운 자질을 반영할 때, '자질 문자'로 설정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47 창의적 사고 (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정답 ③】

(정답 해설) 보기의 조건은 ‘음운 문자이면서 자질 문자의 특성을 갖고, 모아쓰기를 하는 것’이다. 음운 문자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자음과 모음을 나누어 구분해야 하고, 자질 문자의 특성을 표현하려면 가획이 글자의 원리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면 된다. 모아쓰기는 자음과 모음을 분리하지 않고, 한 글자 안에 담아내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도토리]’는 음운 문자의 특징을 반영하면 ‘ㄷ+ㄱ+ㅌ+ㅌ+ㄱ+ㄹ+ㅣ’가 되고, 여기에 자질 문자의 특성을 표현하려면 기본 그림에 획을 추가하면 된다. 그 다음 모아쓰기를 할 때에는 자음 글자와 모음 글자를 같이 쓰면 된다.

(오답 해설) ①, ②는 모음이 결합하지 않았으므로 음운 문자의 특징을 표현하지 못 했기 때문에 오답이다. ④는 ‘토’의 모음 표현이 잘못되었다. ⑤는 음운 문자, 모아쓰기 조건만이 반영되었다.

[2015학년도 수능 A형 11번] - 음운의 변동 (본문 p.69)

11 음운의 변동 (개념 적용) 【정답 ③】

(정답 해설) <보기>에서는 모음의 변동의 종류를 들고 있다. 첫 번째로 모음 변동의 결과 두 개의 단모음 중 하나가 없어지는 것은 ‘탈락’ 현상이고, 밑줄 친 ㉠의 경우는 ‘축약’ 현상, 단모음 사이에 반모음이 첨가되는 것은 ‘첨가’ 현상이다. <보기>의 [모음 변동의 사례]를 보면

㉠ 살피 + 어 → [살피]는 ‘피’가 ‘피의 ㅣ’ + ‘어’이기 때문에 단모음 ‘ㅣ’와 단모음 ‘어’가 ‘축약’되어 이중모음인 ‘ㅍ’로 변환 ㉠의 경우에 해당한다.

㉡ 배우 + 어 → [배우]는 ‘워’가 ‘우의 ㅜ’ + ‘어’이기 때문에 단모음 ‘ㅜ’와 단모음 ‘어’가 ‘축약’되어 이중모음인 ‘워’로 변환 ㉠의 경우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 기 + 어 → [기여]는 ‘여’가 ‘ㅣ’ + ‘ㅣ’이기 때문에 반모음 ‘ㅣ’[j]가 ‘ㅣ’를 만나 변동한 것으로 ‘기 + 반모음 ㅣ[j] + 어’ 즉, 두 개의 단모음 중 ‘반모음 ㅣ’[j]가 첨가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 나서 + 어 → [나서]는 ‘서’의 단모음 ‘ㅣ’와 단모음 ‘어’가 만나 [나서]로 변동하였기 때문에 두 개의 단모음 중 하나가 없어진 ‘탈락’ 현상에 해당한다.

[2014학년도 수능 A형 11번] - 음운의 변동 (본문 p.69)

11 어휘 · 어법 (음운의 변동) 【정답 ③】

(정답 해설) ㉠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 예이고, 음운의 변동의 종류로는 ‘교체’에 해당한다. ㉡은 ‘된소리 되기’ 현상이 적용된 예이고, 음운의 변동의 종류로는 ‘교체’에 해당한다. ㉢은 ‘거센소리 되기’가 적용된 예이고, 음운의 변동의 종류로는 ‘축약’에 해당한다. ‘따뜻하다’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어 ‘따뜻하다’로 발음된 후, ‘축약’이 적용되어 [따뜨타다]로 발음된다. 그러므로, ㉠과 ㉢의 변동이 모두 적용된 예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 ㉠은 음절 종성에 놓인 자음이 바뀐 예에 해당하지만, ㉡은 ‘뱀’이 ‘뱍’으로 바뀐 것처럼 초성에 놓인 자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 ㉠ 중 ‘앞 → [압]’은 거센소리가 된소리로 바뀌었지만, 나머지 예는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 ㉢ 역시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 ㉢은 뒤의 자음이 앞의 자음에 동화된 현상이지만, ㉣은 축약이기 때문에 동화 현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 ㉤은 음운의 첨가가 아닌 교체에 해당되고, ㉣은 음운의 축약에 해당한다.

[37-39 지문해설]

《지문의 구조》

처음	1문단	(현재 수용되는 개념 제시)	오늘날 단일어로 여겨지는 '두더지'는 본래 두 단어가 결합한 합성어였다.
중간	2문단	(선행 개념 부연)	↓ 구를 만드는 방법을 따를 경우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국어
	3문단	(개념 심화 적용)	↓ 구를 만드는 방법은 합성어에도 적용 가능
	4문단	(유형 분류)	- 따를 경우, 통사적 합성어[분류] - 따르지 않을 경우, 비통사적 합성어[분류]
끝	5문단	(현재 수용되는 개념의 정립 배경 밝힘)	↓ 비통사적 합성어(두더지) 중 어형변화가 이루어지면 단어의 원래 짜임새를 알기 어렵게 됨

주제 : 한글이 지닌 문자적 특징과 의의

37 사실적 사고 (세부 내용 확인) 【정답 ⑤】

(정답 해설) 5문단을 보면, '두더지'의 어형변화로 이제는 이것이 합성어였음을 알아차리기 쉽지 않다는 설명이 나와 있어 적절한 설명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1문단에서 '두더지'는 본래 합성어였는데, 현재 단일어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의 분류 기준은 구를 만드는 방법을 따랐는지 여부이다. 본문의 예로는 모두 2단어가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개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③ 구를 만드는 방법을 따르지 않을 때,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한다.

④ '숫돌'은 형태변화와, 품사의 소멸을 겪었다.

38 추론적 사고 (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정답 ④】

(정답 해설) '귀엣말'은 '귀(체언)+에(부사격조사)+ㅅ(관형격조사)+말(체언)'의 구조로 분석할 수 있다. 이것은 15세기 국어의 '거우루엣 그르멜'과 유사한 구성으로 이를 분석하면, '거우루(체언)+에(부사격조사)+ㅅ(관형격조사)+(제) +그르멜(체언)'이 된다. 그러므로, '엣'은 '에+ㅅ'이기 때문에 오늘날 부사격조사'에'의 역할과 관형격조사의 역할 모두를 한다고 봐야 한다.

(오답 해설) ① 정답 해설을 참고하면, 둘이 동일한 구조로 분석됨을 알 수 있다.

② '제'를 제거하면 '귀엣말'과 '거우루엣 그르멜'은 같은 짜임을 보이므로 예측 가능한 부분이다.

③ ②의 설명을 거꾸로 적용하면, '제'를 '귀엣말'에 넣어 '귀엣 제 말'과 같은 구성도 가능함을 알 수 있다.

⑤ '귀엣말'은 현재 구를 만드는 방법을 따르지 않아 비통사적 합성어에 분류된다. 그러나, 15세기였다면 구를 만드는 일반적인 방식을 따르고 있으므로 통사적 합성어로 분류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9 창의적 사고 (새로운 개념에의 적용) 【정답 ③】

(정답 해설) ㉔의 '오르내리다'는 용언 어간인 '오르-'와 '내리-'가 결합한 합성어이다. 이와 같은 구조로 비통사적 합성어를 만들면 용언 어간인 '읽-'과 '갈무리하-'가 결합하여 '읽갈무리하다'라는 단어가 만들어져야 한다. 하지만 용언의 연결 어미인 '-어'를 넣었기 때문에 오답이 된다.

(오답 해설) ① ㉔의 '호두과자'는 체언과 체언이 결합한 형태이다. '가락(체언)'과 '연필(체언)'의 결합도 이에 해당한다.

② ㉔의 '된장'은 용언의 관형사형과 체언이 결합한 형태이다. 즉, '된'은 '되다'의 용언의 어간이 '장'을 꾸미면서 관형사형 어미인 'ㄴ'과 결합하여 용언의 관형사형이란 말이 붙게 되었다. '빼빼한연필' 역시 용언의 어간(빼빼하-)이 '연필(체언)'을 꾸며 관형사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해당 예가 된다.



- ④ ㉔의 '뱃상'은 용언 어간(뱃-)에 체언(상)이 직접 결합한 형태이다. '부드럽다'의 어간은 '부드럽-'이고, 체언인 '국수'가 결합한 것이 '부드럽국수'이기 때문에 적절한 예가 된다.
- ⑤ ㉕의 '어둑새벽'은 독립적이지 않은 어근과 체언이 결합한 형태이다. 어근은 실질형태소로, 단어의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을 의미한다. '새콤달콤하다'라는 단어에서도 실질적 의미는 '새콤달콤-'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와 '국수'를 결합한 '새콤달콤국수'는 적절한 예이다.

[2014학년도 예비수능 모의평가 A형·B형 공통 15번] - 파생어의 형성[파생접사의 쓰임] (본문 p.91)

15 어휘·어법 (개념 적용) 【정답 ⑤】

- (정답 해설) 한과를 전문으로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한과장이'를 사용하였는데, <보기>에서도 '-장이'는 그것과 관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의 뜻을 의미하기 때문에 적절한 예가 된다.
- (오답 해설) ① '-지기'는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유행지기'에는 유행에 민감한 사람을 의미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② '-꾸러기'는 그것이 심하거나 많은 사람의 뜻을 나타내는데, '산꾸러기'는 산을 자주 가는 것을 의미하지 소유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
- ③ '노래꾸러기'는 노래를 멋있게 부르는 사람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꾸러기'의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다.
- ④ '농담장이'는 농담을 많이 하는 것이지 기술을 갖고 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2013학년도 6월 모의평가 12번] - 파생어의 의미[접사의 의미 차이] (본문 p.91)

12 어휘·어법 (개념 이해) 【정답 ②】

- (정답 해설) '덧대다'는 '대어 놓은 것 위에 겹쳐 대다'를 뜻하고, 이때 '덧-'의 의미는 '겹쳐'로 풀이하여 쓸 수 있다.
- (오답 해설) ① '치뜨다'는 '눈을 위쪽으로 뜨다'를 의미하고, 이때 '치-'는 '위로'로 풀이하여 쓸 수 있다.
- ③ '들끓다'는 '한곳에 여럿이 많이 모여 수선스럽게 움직이다'를 의미하고, 이때 '들-'은 '마구', '몹시'로 풀이하여 쓸 수 있다.
- ④ '되감다'는 '도로 감거나 다시 감다'를 의미하고, 이때 '되-'는 '도로', '다시'로 풀이하여 쓸 수 있다.
- ⑤ '휘젓다'는 '골고루 섞이도록 마구 젓다'를 의미하고, 이때 '휘-'는 '마구'로 풀이하여 쓸 수 있다.

[2008학년도 수능 11번] - 파생어의 의미[접사의 의미 차이] (본문 p. 92)

11 어휘·어법 (어휘 의미 이해) 【정답 ⑤】

- (정답 해설) '싸움질하다'의 접미사 '-질'은 '그런 일 또는 그런 행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다. 그러므로, '심하게'라는 의미는 내포되어 있지 않다.

[2012학년도 9월 모의평가 12번] - 파생어의 이해 (본문 p.93)

12 어휘·어법 (개념 적용) 【정답 ⑤】

- (정답 해설) '읽히다'는 동사 어간 '읽-'에 피동 접사인 '-히-'가 붙어 바뀐 단어이다. 그렇지만, '읽히다'로 바뀐 뒤에도 여전히 동사인 품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㉔에 해당하는 예이다.
- (오답 해설) ① 명사 '뗏'에 접사 '-쟁이'가 붙으면 그대로 명사 '뗏쟁이'가 되므로 ㉑에 해당한다.
- ② 접사 '새-'와 형용사 '파랗다'가 결합하면 그대로 형용사 '새파랗다'가 되므로 ㉒에 해당한다.
- ③ 동사 '지우다'의 어간과 접사 '-개'가 결합한 '지우개'는 명사로 품사가 바뀌었으므로 ㉓에 해당한다.
- ④ 능동을 의미하는 동사 '열다'에 피동 접사 '-리-'를 결합한 동사 '열리다'는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므로 ㉕에 해당한다.

14 어휘 · 어법 (개념 적용) 【정답 ①】

(정답 해설) ‘당신’은 2인칭 대명사로도 쓰이고, 3인칭 재귀대명사로도 사용된다. ‘가’의 ‘저희’는 1인칭인 우리의 낮춤말이다. 반면, ‘나’의 ‘저희’는 3인칭 재귀대명사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보기와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

(오답 해설) ② ‘가’의 ‘누구’는 지시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것을 가리키는 미지칭 대명사(3인칭)이다. ‘나’의 ‘누구’는 지시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것을 가리키는 부정칭 대명사(3인칭)이다. 모두, 3인칭을 가리키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없다.

- ③ ‘가’의 ‘그’는 3인칭 대명사이고, ‘나’의 ‘그’ 역시 지시대명사로 3인칭이다.
- ④ ‘가’의 ‘너희’와 ‘나’의 ‘너희’는 모두 2인칭 대명사이다.
- ⑤ ‘가’의 ‘우리’와 ‘나’의 ‘우리’는 모두 1인칭 대명사이다.

14 어휘 · 어법 (개념 적용) 【정답 ③】

(정답 해설) ③ ‘날이 흐린 걸’을 ‘날이 흐린 것’으로 치환하더라도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를 의존 명사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띄어 쓰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몸에도 좋지 않은 것’으로 바꿔 쓸 수 있고, 띄어쓰기를 사용하였으므로 의존 명사임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내가 바라는 것’으로 바꿔 쓸 수 있고, 띄어쓰기를 사용하였으므로 의존 명사임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고 걸’과 결합했으므로 이는 어미의 일부로 봐야하고 따라서 붙여 쓰는 것이 적절하다.
- ⑤ ‘감탄의 뜻’에 해당하므로 붙여 쓰는 것이 적절하다.

【41-43 지문해설】

			《지문의 구조》	
처음	1문단	(개념 소개)	국어의 2인칭 대명사	
		(개념 열거)	①너 ②너희 ③자네 ④당신 ⑤임자 ⑥그대 ⑦여러분 ⑧귀하 ⑨노형 ⑩제군 ⑪자기	
중간 + 끝	2문단	(열거된 유형)	①너 ②너희 ③자네의 개념 및 특징	
	3문단	상세화)	④당신 ⑤임자 ⑥그대 ⑦여러분의 개념 및 특징	
	4문단		⑧귀하 ⑨노형 ⑩제군의 개념 및 특징	
주제 : 국어의 2인칭 대명사의 종류와 특징				

41 사실적 사고 (세부 정보 파악) 【정답 ③】

(정답 해설) 2문단을 살펴보면, 듣는 이를 낮추는 2인칭 대명사는 ‘너, 너희, 자네’가 있는데, ‘자네’는 ‘너’보다 상대를 높이고 있다는 설명도 나와 있으므로, 높임의 등급 구분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동시에 가리키는 대명사는 본문에 나와 있지 않다.

② 친밀도에 따라 달라지는 쓰임은 ‘임자’를 보면 확인 가능하다. ‘임자’는 ‘자네’라고 부르기 거북한 사람에게 쓰는 표현이다.

④ 2문단에서 ‘너희’는 단수, ‘너희들’은 복수를 나타낼 때 확인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5문단의 설명에는 ‘대화 상황에서는 눈앞에 있는 사람을 구태여 가리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2인칭 대명사를 아예 생략하는 일도 많다’는 설명이 덧붙여있다.



42 추론적 사고 (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정답 ①】

(정답 해설) '2인칭 대명사의 역할'을 알아보기 위해선 제일 쉬운 예로 각각의 자리에 '너'를 대입해보는 것이다. ㉔는 '너'가 아닌 김부장의 말을 듣고 있는 '한 상무'를 가리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㉒ '고모님'은 제3의 인물을 가리키는 말로, 3인칭 대명사가 된다.

㉓ '우리'는 '한 상무' 자신과 '김 부장' 모두를 가리키는 말로, 1인칭 대명사에 해당된다.

㉕ '내외분'은 '고모'와 '고모'와 '고모부'를 가리키므로 3인칭 대명사의 역할을 한다.

㉖ '김 부장'은 제3의 인물로 3인칭 대명사의 역할을 한다.

43 추론적 사고 (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정답 ②】

(정답 해설) ㉑은 '당신'이 2인칭 대명사로 쓰일 때를 가리키고, ㉒은 '당신'이 3인칭 재귀대명사로 쓰일 때를 가리킨다. 이것과 동일하게 서로 다른 인칭으로 묶인 예는 ㉔이 된다. ㉔의 '자기'는 2인칭으로 쓰였고, 후자의 '자기'는 3인칭 재귀 대명사의 역할을 나타낸다.

(오답 해설) ㉑, ㉓, ㉕, ㉖의 '너', '자네', '그대', '여러분'은 모두 2인칭 대명사이다.

[2015학년도 6월 모의평가 A형 12번] - (본문 p.109)

12 품사의 특징 (개념 적용) 【정답 ③】

(정답 해설) 보기에도 나와 있듯이, 보조사는 하나의 문장 성분 외에도 여러 문장 성분에 쓰일 수 있다. 그런데 '한테'의 경우 '친구한테'처럼 '친구에게'의 의미로 쓰여 어떤 행동이 미치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부사격조사의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 '내한테, 가방한테' 등 주격이나 목적격조사로 쓰일 수 없으므로 부사격조사에 한정해 쓰이는 격조사임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해설) ㉑ '밤에만'의 '만'은 부사격조사뿐만 아니라 '삼촌만, 글만' 등 주격이나 목적격조사로 쓰일 수 있어 '다른 것을 제한하여 어느 것을 한정함을 나타내는 보조사'에 해당한다.

㉒ '오늘은'의 '은'은 '선수들은, 간식은' 등 주격이나 목적격조사로 쓰일 수 있어 '체언, 부사, 활용 어미 등에 붙어 어떤 특별한 의미를 더해 주는 보조사'에 해당한다.

㉔ '악기도'의 '도'는 '아이들도'처럼 주격조사로도 쓰일 수 있어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에 해당한다.

㉕ '책으로까지'의 '까지'는 '누나까지'처럼 주격조사로도 쓰일 수 있어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에 해당한다.

[36-38 지문해설]

《지문의 구조》

처음	1문단	(개념 소개) (세부 개념)	용언의 개념 ↓ 용언의 문법적 특성을 결정하는 어미의 특성 ↓																					
중간 + 끝	2문단 3문단	(개념 대조)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어미</td> <td style="text-align: center;">조사</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공통점</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홀로 쓰일 수 없음</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차이점</td> <td style="text-align: center;">항상 어간과 결합, 선행 요소도 독립적으로 쓰이지 못함</td> <td style="text-align: center;">선행 요소가 단독으로 쓰임, 생략도 가능(분리되기 쉬움)</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품사 설정</td> <td style="text-align: center;">품사로 설정하지 않음</td> <td style="text-align: center;">품사로 설정</td> </tr> </table>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어미</td> <td style="text-align: center;">접미사</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공통점</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홀로 쓰일 수 없음</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차이점</td> <td style="text-align: center;">새로운 단어를 형성하지 못함, 대부분의 용언 어간과 결합 가능</td> <td style="text-align: center;">새로운 단어를 파생, 결합할 수 있는 대상이 제한</td> </tr> </table>		어미	조사	공통점	홀로 쓰일 수 없음		차이점	항상 어간과 결합, 선행 요소도 독립적으로 쓰이지 못함	선행 요소가 단독으로 쓰임, 생략도 가능(분리되기 쉬움)	품사 설정	품사로 설정하지 않음	품사로 설정		어미	접미사	공통점	홀로 쓰일 수 없음		차이점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지 못함, 대부분의 용언 어간과 결합 가능	새로운 단어를 파생, 결합할 수 있는 대상이 제한
	어미	조사																						
공통점	홀로 쓰일 수 없음																							
차이점	항상 어간과 결합, 선행 요소도 독립적으로 쓰이지 못함	선행 요소가 단독으로 쓰임, 생략도 가능(분리되기 쉬움)																						
품사 설정	품사로 설정하지 않음	품사로 설정																						
	어미	접미사																						
공통점	홀로 쓰일 수 없음																							
차이점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지 못함, 대부분의 용언 어간과 결합 가능	새로운 단어를 파생, 결합할 수 있는 대상이 제한																						

주제 : 용언의 어미가 지닌 문법적 특성

36 사실적 사고 (설명 방식의 이해) 【정답 ⑤】

(정답 해설) 본문은 용언의 어미를 기준으로 하여 주로 비슷한 특성을 보이는 개념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대조하여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답은 ⑤번이 된다.

37 추론적 사고 (해당 내용 확인) 【정답 ②】

(정답 해설) 2문단에서, 어미와 조사는 모두 홀로 쓰일 수 없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나아가, 어미는 선행 요소인 ‘어간’도 독립적으로 쓰일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오답이다.

(오답 해설) ① 1문단 맨 처음 설명에, ‘용언은 어간과 어미로 이루어진다’라는 표현이 있다.

② 2문단에서, ‘학교 문법에서는 어미를 단어로 인정하지 않고 그에 따라 별도의 품사로 설정하지 않는다’로 규정하고 있다.

④ 3문단에서 용언은 종결 어미 ‘-다’가 결합한 기본형만을 사전에 표제어로 등재한다.

⑤ 어미는 새로운 단어를 파생시키지 않는다.

38 추론적 사고 (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정답 ④】

(정답 해설) ‘마음이 놓이네’의 ‘놓이네’는 동사 어간 ‘놓-’에 피동 접사 ‘-이-’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지만, ‘놓다’나 ‘놓이다’는 모두 동사로 품사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12 어휘·어법 (개념 적용) 【정답 ②】

(정답 해설) ㄱ의 ‘치면서’는 평서문과, ㄴ의 ‘먹으면서’는 명령문, 청유문, 의문문과 어울리고 있다. 그러므로 어울릴 수 없다란 설명은 적절치 않다.



[2013학년도 7월 학력평가 A·B형 공통 13번] - 높임 표현의 이해 (본문 p.173)

13 어휘·어법 (개념 적용) 【정답 ②】

(정답 해설) 손님이 사용한 ‘저희’는 자신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상대방을 고려하여 자신을 낮추기 위해 사용한다. 그러나 이를 통해 아버지를 높이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으므로 ②는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오답 해설) ① ‘-더니까’는 상대 높임 중 격식체에서 사용하는 표현으로, 아주 높임을 나타내는 ‘하십시 오체’의 의문형 실현 모습이다. 그러므로, 종결 어미를 통해 상대를 높이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③ ‘-시-’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로 점원이 손님을 높이기 위해 사용한 높임 표현이고, ‘드리다’는 객체 높임을 나타내는 어휘이므로 손님의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사용한 높임 표현이다.

④ 주체 높임에서는 높여야 할 대상의 신체 부분, 소유물, 생각 등과 관련된 말도 간접적으로 높일 수 있다. 여기에서 ‘어깨’는 아버지의 어깨이기 때문에 주체 높임을 사용한 것이다.

⑤ 객체 높임은 주로 특수 어휘로 자주 실현되곤 하는데 여기에서도 ‘모시다’라는 단어를 통해 객체인 ‘어르신’을 높이고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2012학년도 6월 모의평가 44-46번 비문학[언어]] - 한국어 경어법 (본문 p.174)

[44-46 지문해설]

《지문의 구조》

처음	1문단	(중심화제에 관한 일반적 견해)	비슷한 의미를 지닌 단어들의 높임법 차원에서의 구별[예시]
중간 + 끝	2문단	(실제 논지 제시)	↓ 높임 표현의 선택 결정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요인들 ① 서열 ② 친분 ③ 상황의 격식성
	3문단	(개념	① 서열에 따른 높임 표현의 선택과 그 사례
	4문단	상세화)	② 친분에 따른 높임 표현의 선택과 그 사례
	5문단		③ 상황의 격식성에 따른 높임 표현의 선택과 그 사례

주제 : 높임 표현 선택의 사회적 요인과 구체적 사례들을 통한 이해

44 사실적 사고 (일치 불일치) 【정답 ③】

(정답 해설) 화자와 청자의 성별에 따라 높임 표현이 달라진다는 설명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1문단을 보면, 비슷한 의미를 지닌 단어들이 높임법 차원에서 서로 구별되어 쓰이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 나와 있다.

② 4문단을 보면 서열상으로 높은 신분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상대와의 ‘친분’에 따라 높임 표현을 달리 선택한다고 나와 있다.

④ 1문단을 보면 고유어와 한자어의 의미가 비슷할 경우, 일반적으로 고유어보다는 한자어가 더 높은 말로 쓰인다고 언급하고 있다.

⑤ 3, 4, 5문단의 내용을 종합하면 화자와 청자가 대화를 하는 상황에 따라, 대화를 하는 상대와의 친분에 따라, 그리고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의 ‘격식성’에 따라 높임 표현이 달라진다고 언급하고 있다.

45 추론적 사고 (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정답 ②】

(정답 해설) ㉠은 고유어와 한자어의 의미가 비슷할 경우, 한자어가 더 높임의 뜻을 나타낼 때를 가리키고, ㉡은 같은 한자어 안에서 높임의 차이가 있을 때를 의미하며 ㉢은 고유어 가운데에서 높임의 차이를 보이는 단어들을 가리킨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예들은 차례대로 ㉠은 이-치아, ㉡은 사망-별세, ㉢은 있다-계시다인 ②번이 된다.

46 추론적 사고 (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정답 ①】

(정답 해설) 사장은 과장보다 높은 직급이므로, 높임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위치이다. 그러므로, '미안하다'라는 표현을 써도 무방하다.

[2005학년도 6월 모의평가 14번] - 시제 이해하기 (본문 p.179)

14 어휘·어법 (개념 적용) 【정답 ③】

(정답 해설) ㉠ '먹고 있다'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서 행동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에 해당하고, ㉡ '갔었다'는 과거에 갔던 행위를 한 후, 현재는 행위가 이어지지 않고 완료된 모습을 의미하므로 ㉡에 해당된다. ㉢ '사용해 왔다'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온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지만, 미래까지 예측하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에 해당하는 표현이다.

[2014학년도 10월 학력평가 A형 13번] - (본문 p.179)

13 시제 (개념 적용) 【정답 ①】

(정답 해설) '너는 이제 집에 돌아오면 혼났다'의 문장에서 '-았-'은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로 쓰인 것이 아니라 미래의 일을 나타내는 특수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ㄱ'에 해당하지 않는 예이다.

(오답 해설) ② '나는 예전에 그 집에 살았었다'의 문장에서 '-았었-'은 과거 시제를 나타내면서 현재와 완전히 단절된 사건을 나타내는 데 쓰인다.

③ '지난 여름에는 정말 덥더라'의 '-더-'는 과거 회상 선어말 어미이다.

④ '방학 동안 읽은 책이 제법 여러 권이다.'의 관형사형 어미 '-(으)ㄴ-'는 책을 읽는 행위가 진행 중이 아니라 과거인 방학동안 끝난 것이기 때문에 과거를 나타낸다.

⑤ '여름에 푸르던 산이 붉게 물들었다'의 관형사형 어미 '-던'은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

[2013학년도 10월 학력평가 A형·B형 공통 15번] - 시제와 상 (본문 p.180)

15 어휘·어법 (개념 적용) 【정답 ③】

(정답 해설) ㉢의 '-ㄴ-'은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 과거 시제는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는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발화시가 사건시에 앞선다는 미래 시제에 관한 설명은 답이 될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고 있구나'는 동작이 진행되는 진행상을 나타낸다.

② '-았-'은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로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선 경우를 나타내고 있다.

④ '-어 버렸어요'는 완료상을 나타내어 동작이 이미 끝났음을 의미한다.

⑤ '-르'는 미래 시제를 나타내므로, 발화시가 사건시에 앞선 것을 나타낸다.



[2013학년도 3월 학력평가 A형·B형 공통 14번] - 단어의 의미 확장 (본문 p.212)

14 어휘·어법 (단어의 의미 확장) 【정답 ③】

(정답 해설) 어떤 낱말이 지니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를 외연적 의미라고 하고, 1차적 의미, 개념적 의미, 인지적 의미, 사전적 의미라고 한다. ‘보다’, ‘듣다’, ‘느끼다’, ‘맛보다’, ‘말다’는 감각 기관을 통해 대상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는 데 1차적 의미는 바로 이런 뜻을 나타낼 경우를 가리킨다. 이러한 1차적 의미를 통해 개념이 확장되어 연상되는 추상적인 인식이나 판단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는데 문제에서는 이것을 가리킨다. ③은 ‘이불의 감촉을 느끼다’와 ‘무릎에 통증을 느끼다’가 모두 감각 기관을 통해 대상을 인식하는 기본 의미를 나타내므로,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해설)** ① ‘다회를 보며~’는 기본 의미가 사용되었고, ‘~중심으로 본다.’는 감각 기관을 통해 보는 것에서 나아가 ‘관점’을 나타내는 추상적 의미가 사용되었다.
 ②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듣고~’는 기본 의미가 사용되었고, ‘~진담으로 듣는다.’는 실제 듣는 것이 아니라 ‘간주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추상적 의미가 사용되었다.
 ④ ‘~간이 어떤지 맛보았다.’는 기본 의미가 사용되었고, ‘~상실감을 맛본다.’는 ‘맛’이 아닌, ‘경험’을 의미하므로 추상적 의미가 사용되었다.
 ⑤ ‘라일락 향기를 맡으니~’는 기본 의미가 사용되었고, ‘~범인이라는 냄새를 맡았다.’는 실제 냄새가 아닌 ‘낌새를 알아차리다.’의 의미가 사용되었다.

[2010학년도 수능 30-31번 비문학언어] - 음운의 변별적 지질 (본문 p.213)

[30-31 지문해설]

《지문의 구조》

처음	1문단	(개념 제시)	언어학에서의 변별적 자질의 개념과 예[정의, 예시]
중간 +	2문단	(개념 확대)	음운 현상의 음들을 체계화할 수 있게 하는 변별적 자질
끝	3문단	(개념 상세화)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원리 및 효과

주제 : 변별적 자질의 개념과 그 의의

30 사실적 사고 (일치 불일치) 【정답 ②】

(정답 해설) 2문단의 내용을 확인해 보면, 변별적 자질을 사용하면 음운 현상에서 함께 행동하며 하나의 부류를 형성하는 음들은 공통의 변별적 자질로 표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오답 해설)** ① 1문단을 보면, 음성적 특성을 통해 변별적 자질을 나타내는 것은 맞지만 변별적 자질보다 음성간의 대립이 음운 간의 대립을 나타낸다는 설명은 나와 있지 않다. 오히려, 음성적 특성만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변별적 자질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욱 정확하다.
 ③ 1문단을 보면, 하나의 변별적 자질은 하나의 특성만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④ 3문단을 보면 변별적 자질은 일반적으로 양분적인 값을 갖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동시에 +이면서 -값을 가질 수는 없다.
 ⑤ 3문단을 보면 양분적인 값을 사용하는 변별적 자질의 특성은 두 개의 정보를 알려 주는 효과를 지니므로 정보 전달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고 나와 있다.

31 추론적 사고 (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정답 ⑤】

(정답 해설) <보기>는 비음화의 예이다. ㉠의 ‘규칙을 적용받기 전의 음’은 A에 해당하고, ㉡의 ‘규칙을 적용받은 후의 음’은 B에 해당한다. ㉢의 ‘규칙의 환경이 되는 음’은 C에 해당하고, 이를 바탕으로 ㉣은 A와 B, ㉤은 B와 C를 나타낸다. B와 C의 경우, 모두 [+비음성]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은 ㉣에 해당하는 음들이 비음성을 기준으로 하나의 부류를 형성하지 못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틀린 설명이 된다.



[2014학년도 예비수능 모의평가 B형 16번] - 중세 국어의 어휘의 의미 (본문 p.318)

16 중세 국어 (개념 적용) 【정답 ⑤】

(정답 해설) ㉔의 ‘어엿쁘다’는 중세 국어에서 ‘가엿다’를 뜻하였는데, 현대 국어에서 ‘예쁘다’로 ‘모양이 작거나 섬세하여 눈으로 보기에 좋다’는 의미로 바뀌게 되었다. 이는 의미 이동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㉑의 “말씀”은 ‘말’ 전체를 이르는 표현이었다. 즉, 일반적인 말과 높임 표현까지 아우르는 광범위한 개념에서 현대 국어의 높임 표현으로 의미가 축소한 예에 해당한다.

② ㉑의 ‘어리다’는 ‘어리석다’를 뜻하는데, 현대 국어에선 ‘나이가 적다’를 의미한다. 따라서, 의미가 아예 달라졌기 때문에 의미 이동에 해당된다.

③ ㉓의 ‘놈’은 사람 전체를 이르는 말이었다. 이 말이 현대 국어에선 낮춤의 의미로 의미가 축소되었다.

④ ‘하다’는 ‘많다’를 의미했는데, 현대 국어에선 ‘사람이나 동물, 물체 따위가 행동이나 작용을 이루다’란 의미로 원래의 의미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의미 이동에 해당하는 예이다.

[2009학년도 수능 13-15번 비문학(언어)] - 문장 부호 (본문 p.319)

[13-15 지문해설]

《지문의 구조》

처음	1문단	(개념 제시) 비교	옛 문헌에 사용된 문장 부호(현대의 문장 부호와 유사)
중간	2문단	(개념의 구체적 사례)	① 구두점 ‘.’ - 현대의 마침표나 쉼표의 기능
	3문단		② ‘○’ - 새로운 단위의 내용이 시작할 때 쓰임
	4문단		③ ‘【】’ - 주석을 달기 위함
	5문단		④ “ ”, ‘ ’, ‘ ˆ ’ - 앞 글자나 앞 어구와 동일함을 표시
끝	6문단	(결론)	옛 문헌에 쓰인 부호의 의의와 현대적 수용

주제 : 옛 문헌에 쓰인 부호의 종류와 기능

13 사실적 사고 (주제) 【정답 ③】

(정답 해설) 위 글은 옛 문헌에 쓰인 부호에 대해 간단한 개념을 언급하고 이에 해당하는 종류와 기능을 설명하는 것 위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14 추론적 사고 (개념 적용) 【정답 ④】

(정답 해설) 본문에서 ㉑은 앞 글자나 앞 어구와 동일함을 표시해 주는 부호인데, 인쇄본보다는 손으로 쓴 필사본에 더 많이 나타난다는 설명이 있다. 이는 손으로 쓰는 수고를 덜기 위해 반복되는 문장은 생략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15 추론적 사고 (유사 사례에의 적용) 【정답 ④】

(정답 해설) ‘【】’은 단어나 구절의 뜻을 풀이하거나, 보충 설명이 필요할 때 사용한 것으로 적절하게 사용한 것은 맞지만, 4문단에서 ‘】’이 구절과 마찬가지로 단락이 끝나는 위치에서는 생략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④는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